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대책 ‘제자리’

제주, 배터리 급증에도 활용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 한계 연구·개발, 기업육성 등 인프라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이를 활용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이 도래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에 위탁해 국내 최초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부터 평가, 재사용, 매각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제주TP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해 왔다.

31일 제주도와 제주TP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4만9300여대로 이는 도내 전체 운행 차량의 11%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도내에서 회수되는 사용후 배터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80건이 회수됐는데, 2025년에는 287건이 회수되며 6년 만에 3.5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8월 31일 기준 277건이 회수됐다. 매각 실적 역시 증가세다. 2024년 211대였던 매각

물량은 2025년 442대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회수되는 사용후 배터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제주의 신산업과 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운영 여건도 예산 등으로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배터리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예산을 보면 센터는 제주도로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억5000만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해 왔다. 이어 지원 예산은 2024년 2억9400만원, 2025년 2억8000만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지

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단순히 사용후 배터리를 회수하고 매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TP 관계자는 “매년 제주도와 협의해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구·개발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문인로에서

흔들림 없는 제주교육자치의 길

교육위원회 제도가 일몰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교육자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교육전문성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마음을 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제13대 전반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두 달 동안 그러한 우려를 신뢰로 바꾸기 위해 섬 없이 달려왔다.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부터 기초학력 보장, IB프로그램, 신설학교 점검 등 교육시설의 안전과 환경 개선,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정책 질의를 이어왔다. 단순한 현안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따져 묻는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위원회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다.

교육과정 지속 점검·개선해 교육자치 가치 굳건히 확립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역할도

교육의원은 일몰되었지만 교육위원회의 역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 도의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위원회는 교육뿐 아니라 복지, 문화, 환경, 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식견을 교육정책에 접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교육은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과제다.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정책 경험은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교육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특례다. 특히 자율학교는 제주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교육자치의 선구적 제도다. 학생 삶



강 동 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학교 운영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하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교육자치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세워가겠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하며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전국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통된 비전 역시 학생 맞춤형 교육, AI전환, 교육복지 확대, 학교의 자율성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교육정책이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주의 교육자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교육자치의 가치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위원장으로 서 더욱 낮은 자세로 학교현장을 찾고, 더욱 치열한 정책 검증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답하겠다. 아이들의 웃음이 빛나는 제주, 교육으로 가장 행복한 섬을 만드는 길에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신혼·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9월 7~30일 3차 접수… 최대 150만원·우선가구 190만원

도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올해 3번째 신청을 받는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3차 접수의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자

녀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원을,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또는 자녀출산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로, 신청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토닥토닥, 참깨 털이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도로변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수확 후 벌에 말린 참깨를 털고 있다. 강희만기자

상시 배출제 시범 빼거덕

>>1면에서 계속=남감하기는 제주시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도는 현재 보유한 수거 인력과 차량 내에서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에 나서야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또 배출량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인력과 장

비 없이 시범 운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 업무와 민원 부담을 이유로 동참을 꺼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시가 특정 지역을 (강제로) 선정해 도에 추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도 고민에 빠졌다. 민원을 상대하는 행정기관 특성상 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상시 배출제 전환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가 넘쳐나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며 “청소 인력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나면 철수하기 때문에 (다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결국 동 주민센터 공무원 몫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청소소에 나설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야 쾌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는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 등과 다시 한번 논의해 9월 내에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만장(萬丈)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재단법인 만장장학회 정관 제4호 및 분회 장학생선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신청기간**
2026년 9월 7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5일간)
- 2. 대 상**
가. 2026년도 김녕중학교 신입생 (학교장 추천)
나. 김녕중학교 졸업생 및 졸업생의 자녀 (대학 재학생)
- 3. 제출서류**
가. 신청서(본회 소정 양식) 1부
→ 김녕중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je.go.kr/gimnyeong)내 알림마당(홍보게시판) 및 김녕중학교 총동창회 밴드에 게시
나. 학업성적 증명서(2026학년도 1학기말 성적), 재학증명서 각 1부
다. 신청인 또는 신청자 보호자의 김녕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등록금 영수증 사본(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1부

※ 접수 및 문의처

- 장학부 회장 김수훈: ☎ 010-2685-5751
- 장 학 부 장 원운원: ☎ 010-5169-9283
- 김녕중학교 행정실: ☎ 064-786-0800

김녕중학교 총동창회장 김창건
재단법인 만장(萬丈)장학회 이사장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적용함.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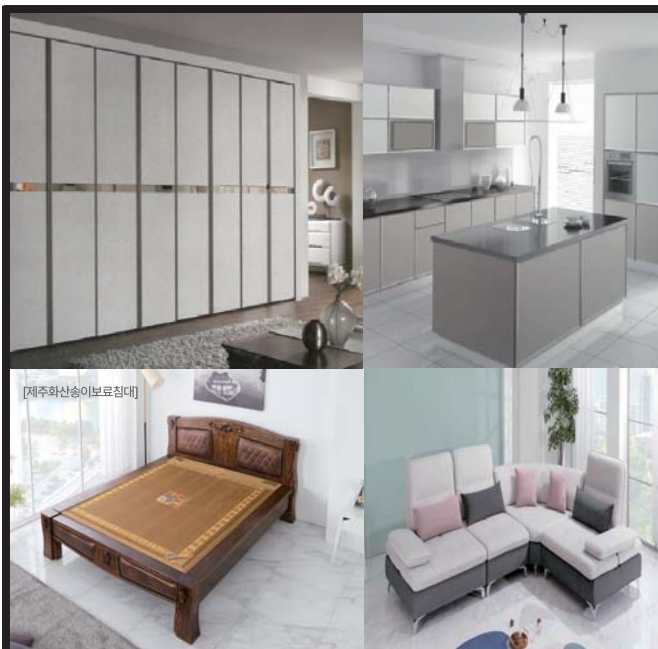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털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